



미국 사람들은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인 류가
고양이를

길들여 기르기 시작한 것은

약 5천년 전 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양이에 대한 인간의 관심도 까다롭게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고양이는 10세기까지는 주로 쥐잡이로 이용되어 왔었고 그후 17세기까지는 귀잡이로서의 그 효용성이 점점 떨어져 별 호감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공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등 많은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생활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귀가 온 도시에 만연하게 되자 이때 부터 고양이는 다시 인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더우기 가요나 시, 소설 등 속에서 찬양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예로부터 고양이에 대해 광적인 관심을 보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권종국

일화도 많

아, 회교의 시조인

마호메트는 자신의 가까운위

에 잠든 고양이를 깨울세라 옷소매를 자

를 정도였고, 헤브라이의 예언자인 사무엘 존슨은 응석받이 자기의 친구인 호지라는 고양이에게 자기도 먹기 어려운 신선한 굴을 매일 끼니마다 제공하였다고 하며, 카디날 리첼리우는 그가 기르던 14마리의 고양이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반면에 천하의 호걸 나폴레옹은 고양이를 보면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고양이를 무서워 했는가 하면, 도스토예프스키가 지은 「카라마조프 형제」라는 소설의 등장인물인 스메르다코프는 어릴 때에 고양이를 교살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고 하는 등 싫든 좋든 고양이에 대하여 광적인 관심을 보인 일화들이 수없이 많다. 필자도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학을

공부하게 된 사람으로서, 어릴 때 개와 고양이를 무척이나 좋아하였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양이를 안고 자다가 아침에 깨어보니 나의 심한 몸부림으로 인하여 불쌍하게도 납작하게 깔려죽은 고양이를 안고 올던 생각도 난다. 그 날렵한 몸매로 재롱을 부릴 때는 어린 나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주곤 하였다. 그러나 웃음이 없는 싸늘한 표정은 사람에게 따라서는 두려움을 안겨 주기도 한다. 옛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 밥상에 꼬리를 스치는 고양이가 미워 막대기로 머리를 때렸더니 그 고양이가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자 겁에 질린 그 며느리는 죽은 고양이를 앞산에 묻었다고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고양이 무덤에 가 보았더니 고양이는 간데 없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고는 급히 집에 달려와 큰 독에 며느리를 감추고 뚜껑을 굳게 닫아 두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구렁이가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를 찾다가, 그 독을 한번 감고서 나갔는데, 이에 놀란 시어머니가 독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며느리는 간데 없고 며느리가 녹아 버린 물 위에는 까만 두 눈동자만이 동동 떠있더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철모르는 어린 우리들의 마음에 고양이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양이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는 사람마다 제각기 달랐고 신경과민적이었으며 심지어는 변덕스럽기조차 하였다.

이렇듯 고양이가 인간의 가장 까다로운 친구로서 인간과의 난처하고도 까다로운 관계에 있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양이 붐이 한창 일어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한 만화가인 짐 데이비스는 그의 연재만화 속에 가르필드라는

고양이를 등장시켜 풍자하고 있는데 이것에 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놀랍게도 84주 동안이나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 셀러 리스트에 올랐으며, 그가 고양이를 소재로 지어낸 3권의 책은 2백만부 이상이나 팔렸고 이어 올봄에는 일간지의 연재만화 칼럼에 그의 4번째 편집물이 실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엘리엇의 시집에서 각색한 ‘캣’이라고 하는 록 뮤직에도 고양이가 등장하여 대단한 인기를 끌었으며 런던에서는 아홉달 동안이나 굉장한 히트를 쳤었고, 올해 초반기에는 브로드웨이를 휩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우기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프레이리 뷰’는 초원지대에 고양이를 위한 아파트와 욕실 및 질이 좋은 가구가 설치된 애완용 모델이 있어 고객인 고양이에게 하루 4,600원을 받고 임대해 주며, 또한 휴가중인 주인으로부터 부쳐온 안부편지조차 고양이에게 읽어 준다는 사실이며,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고양이를 위한 휴양소, 백화점, 임대대리점, 데이트 주선소, 심리학 연구소, 가정교사가 있고, 고양이 울음 소리를 판정하는 경연대회가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한다. 고양이가 새겨진 시트, 타월, 캘린더, 찻잔, 시계, 우산, 티셔츠, 운동셔타, 문방구 및 가정용품도 날개돋힌듯이 순식간에 팔려 나가고 있으며, 뉴욕의 미미 뱅 올센이라는 한 초상화가가 그린 고양이의 초상화가 1,750,000원에 팔렸다고 한다. 이처럼 고양이는 이제 순종이든 잡종이든, 헛간의 쥐잡이든 아파트의 애완용이든 간에 오늘날 미국인의 큰 관심사가 되어 있고 현재 미국인 가정의 24%가 총 3천 4백만 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는 과거 10년간에 있어서 55%나 증가된 수치로서, 최근 약 4천 8백만 마리로 그 수가 안정화되어 있는 개에 비하면 아직

이에는 못 미치나 현재의 고양이 증가 추세로 볼 때는 머지 않아 이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 본다. 이렇듯 고양이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고양이에 대한 미국국민들의 관심이의외에도 국가정책적인 배려가 있기 때문인데, 워싱턴과 뉴욕에서는 동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고양이를 보호대상으로 채택하는 비율이 과거 3~4년간 30%나 급상승하였고 작년에는 고양이 전람회 400회나 열었던 것을 올해는 더 늘어 450회나 열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고양이 조련사인 키디 휘그는 파스라는 고양이에게 10,500원짜리 욕조가 달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으며, 시카고의 동물왕국에는 23,800원짜리 고양이 흔들침대와 새끼 고양이를 달래는 34,300원짜리 흔들목마가 있고, 이외에도 값나가는 고양이 용구들이 즐비하다고 하며, 시카고의 한 가게 주인은, 고양이 애호가들이 새로 들어오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주는데 280,000원쯤 쓰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제일의 명성을 떨쳤던 고양이는 모리스라는 고양이로서 TV인기프로인 「고양이는 아홉개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프로의 고양이 먹이 광고에 그 모습을 드러내어 큰 인기를 끌었으며, TV광고의 가장 훌륭한 출연자로서 1973년에는 「1973 핏지 어워드」상을 수상한 바 있고, 그의 애기를 실은 「모리스」라는 그의 전집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1978년 모리스 1세가 죽자, 모리스 2세가 다시 등장하여 고양이 애호가들을 열광시켰고, 연간 총 20일 동안 출연한 댓가로 3,500,000원~7,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고양이 애호가들은 모리스 1세가 문헌 롬바르드에 그의 묘비가 없는 것을 슬퍼한 나머지, 그 후 그들의 고양이가 죽으면 그 안식처를

정성들여 만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카고 포 프린트 가트에서는 죽은 고양이를 담은 관이 28,000원~98,000원, 화장암 묘비가 56,000원~350,000원까지 나가는게 있다고 한다. 이렇듯 고양이는 현재 미국에서 거센 고양이 붐을 일으키고, 애완용 동물로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고양이 애호가 협회(CFA)에 등록된 고양이는 3만 8천 1백 5십 2마리로서, 새로운 품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고양이에 대한 전문화된 의술적 보호도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수의사들은 상당한 교양과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서 진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만 하여도 대부분의 소동물 수의사들에게는, 그들의 진료중 고양이 임상이 단지 20%만 차지하였기 때문에 고양이 진료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고양이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없었을 뿐더러, 개의 진료법을 고양이에게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써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소동물 임상은 고양이 가 거의 50%나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의술적인 관심도도 매우 높아져 있다. 현재 코넬대학은 「고양이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10년 전만 하여도 미처 알려져 있지 않던 고양이 심장질환 및 약제내성, 호흡기, 바이러스질환 등 전형적인 고양이 질병들을 면밀히 연구,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이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바이러스성 백혈구 질병인 고양이 백혈병은 고양이들 간에 있어서만 전파되며 대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제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고양이에 대한 의술적인 보호가 강화되어 나감에 따라, 병이 나면 즉시 즉시 고쳐줌으로써 고양이의 평

균 수명도 과거보다는 6~8세가 연장된 16~2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이 임상은 현재, 가장 최선의 고양이 의술을 다루고 있는 뉴욕에서 크게 성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병원 대기실에는 향긋한 냄새가 고양이의 악취를 제거해 주며, 경음악과 더불어 고양이에게 폭신 폭신한 쿠션이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대개 방문 진료비는 21,000원, 혈액검사를 포함한 각종의 검사를 받게 되면 그 진료비가 70,000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고양이 진료에 있어서 어려움의 하나는, 고양이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피하조직에 농양소가 생기게 되면 그 병소가 다 낫기도 전에 곁에 있는 피부가 너무나 빨리치유됨으로써 간혹 외과담당 수의사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술리만 박사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개업 수의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고양이 임상의 잇점은, 다른 애완동물과는 달리 고양이 주인들이 그 진료비를 아끼지 않는다고 쉽게 지불하는 점이라고 한다. 또 고양이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특히 심리학적인 특이성을 가져, 긴장완화가 필요하므로 가끔 척추 지압법이나 스웨덴식 안마를 해주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게 좋다고 미첼 폭스라는 한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고양이는 주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어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그 성질이 괴팍해 지는데, 고양이의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성은 대개 이들의 강한 질투심에 연유한다고 해밀톤이라는 한 개업 수의사는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의 고적중 최근에 결혼한 몇몇 부인들이 결혼 전에 기르던 그들의 고양이가, 그들의 결혼한 남편과는 정을 나누지 못하고 무척 애를 먹인다고 한다. 즉 남편의 침대곁에 매일 규칙적으로 오줌을 싸거나, 그들 부부의 조

반 결상에 매일 아침 배뇨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들 고양이의 심한 질투심에서 연유한 불평의 표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고양이의 진료비는 시간당 35,000원정도 받고 있다고 한다. 그의 전반적인 진료 업무가 지난 10년간 4배나 늘어났는데 그중 절반이 고양이에 대한 진료라고 한다. 고양이는 신체적인 구조나 행위에 있어 특이성을 갖고 있다. 고양이의 평균 몸무게는 10파운드이며, 유연한 등뼈를 가지고 있어 1피트 정도의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질 때 놀랍게도 1.8초 이내에 네발을 딛고 내려 선다고 하며, 고양이의 수염은 먹이와 주위 환경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피하조직에 있는 신경다발에 전해 준다고 한다. 또 고양이의 타액에는 냄새를 없애는 세척제와 같은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항상 자기 자신의 얼굴을 씻으며 몸을 깨끗이 유지하는 결벽성을 지녔다고도 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취를 감추고서 쥐에게 접근하려는 행동의 한 일환이며, 고양이가 먹이를 가지고 회롱하는 것은 자기 새끼들에게 사냥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그의 용맹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쥐를 없애버리는데, 이것은 고양이의 본능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고양이의 치아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어 쥐의 등뼈까지도 정교하게 자를 수가 있다. 또한 고양이의 뇌와 신경계도 특이하며, 분할된 대뇌는 좌우 뇌의 기능적 연구를 위해서 실험동물로서 의학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고양이의 도약기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매년 수만 마리의 고양이가 실험동물로서 제공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양이의 뇌와 신경계에 대한 확실한 연구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고양이의 희귀한 음성과 특

히, 가르랑거리는 목소리의 의미나 그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의 하나로 남아 있다. 또 고양이가 어두운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주인의 어깨에 갑자기 뛰어 올라 주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의 주인에 대한 애정의 한 표시라고도 한다. 그리고 고양이의 생활습성은 개와 인간과는 달라,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자 할 때 여러마리가 회의를 하거나 피라밋 조직의 클럽을 형성하지 않으며, 그들의 집단생활에 있어서 우두머리를 뽑을 경우가 있더라도 엄격한 계급제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고양이는 생존력이 강해서 어떠한 특수훈련이 없어도 들판에서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고양이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선진국에서는 고양이가 애완용 동물로서는 물론이고, 연구를 위한 실험동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생활형태가 점점 핵가족화 되어 가고, 살림살이도 차츰 풍족해져 감에 따라 애완소동물에 대한 기호도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또한 근대산업의 발달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주거형태도 과거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생활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애완소동물에 대한 도시인들의 기호도, 넓은 마당을 필요로 하는 개보다는 오히려 사육 장소에 별 제약을 받지 않는 고양이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고양이는 개와는 달리 항상 주인과 더불어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 문제시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고양이 흡충은, 사람에게 감염되어 간

또는 췌장에 암종을 유발하고, 고양이 조충은 어린 아이들이 고양이와 같이 놀 때 고양이의 비록에 의해 섭식 전파됨으로써 어린이의 소장 에 기생하여 경도의 위장혼란을 야기하며 고양이회충은, 주로 4세 이하의 어린애들이 고양이 변에 오염된 흙을 집어 먹음으로써 감염되어 어린이들의 간, 폐, 뇌 및 때로는 눈과 그밖의 장기에 만성 육아종성 병소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 고양이의 교상 또는 할킴에 의해 팔, 다리, 목 등에 국한된 한국성 임파선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양이의 할킴에 의해 발열, 오한, 두통의 증상을 가져오는 '서독' 등의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는 충분한 치료법들이 있다. 즉 고양이흡충 구제에는 포우아딘, 헥사클로로펜 등이 개발되어 있고, 고양이 조충 구제에는 붕화수소산 아레콜린, 디클로로펜, 안텔린, 요메산, 염화수소산 부나디민, 고양이회충 구제에는 다량의 피마자유에 섞은 케노포뎀, 피페라진, 디에틸 카르바마진, 테늄 등이 있으며, '서독'에는 살발산, 비소제,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등이 잘 듣는다고 한다. 이처럼 고양이에 의해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에는 훌륭한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예방에 있다 하겠다. 즉 고양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또 고양이의 습성을 잘 알아 둠으로써 고양이에의 교상이나 할킴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고양이에 대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아울러 풍부한 임상 지식을 배양해 나감으로써, 점점 고조되어 나가고 있는 애완소동물 특히 고양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에 충분히 부응해 나가야 될 것이다.